

국어국문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비견(鄙見)

- 소통과 상생의 측면에서 -

박규홍*

|| 차례 ||

1. 이 시대와 국어국문학
2. 학문학과 학제간 연구
3. 국어국문학과 새로운 학문 생태계
4. 미래와 국어국문학

1. 이 시대와 국어국문학

2021년 12월 15일 현재, 구글로 검색되는 세계의 Covid-19 확진자 수가 무려 2억7천1백만 명에 이른다.¹⁾ 이 중 미국인은 5천1십만 명, 한국인은 52만9천 명이다. 사망자는 전 세계 531만 명 중 미국인이 79만 7천 명, 한국인이 4,387명이라고 한다.²⁾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데이터가 지금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웅변하고 있다.

* 전 경일대학교 교수, 병화연구소 소장

- 1) 구글에서 ‘출처: 위키백과 및 기타’로 표기된 데이터로 최종 업데이트 일시가 국가에 따라 하루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 2) 2021년 11월 27일 기초발제 때 제시한 데이터는 ‘2021년 11월 21일 현재 전 세계 확진자 2억5천7백만 명 중 미국인이 4천7백7십만 명, 한국인이 41만5천 명’이었다. 사망자는 ‘전 세계 515만 명, 미국인 77만 명, 한국인 3,274명’이었다. 20여 일 사이에 전 세계에서 확진자 1천4백만 명, 사망자 16만 명 내외가 증가한 셈이다.

이번 학술대회的主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통과 상생으로서의 국어국문학 역할’이다. Covid-19가 초래한 변화상은 바이러스와의 관계를 쉽게 떠올리기 어려운 국어국문학의 역할까지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코로나로 인해 이제까지의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새로운 질서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현 상황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가 직면한 난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데에 있다.

그간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화로 생산된 각종 폐기물(방사능, 플라스틱, 이산화탄소, 콘크리트 등)이 지구의 지권(地圈), 수권(水圈), 기권(氣圈), 생물권(生物圈) 등에 퇴적되면서 현재 지구의 신진대사(planetary diabolism)는 매우 심각하게 교란되고 있다고 한다. 20세기 중반 이후 인구팽창, 기술혁신, 대량생산 및 소비 등에 의한 ‘거대한 가속화(great acceleration)’로 지구 시스템의 지질학적, 화학적 퇴행과 파괴가 지금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³⁾ 인류가 지구 기후와 생태계를 변화시켜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 Epoch)란 새로운 지질시대에 진입했다는 이야기다.

한국은 Covid-19 초기에 비교적 잘 대처함으로써 전에 없던 국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으나, 급격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이에 따른 각종 사회 문제 등이 코로나에 가세하여 국민의 고통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욱이 정-경-관-언-학 카르텔에 의한 정치권력·사회권력 독과점과 양극화⁴⁾ 같은 고질은 ‘코로나 블루’ 이상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을 해치고

3) 조명래, 「탄소중립과 지구적 책임의 시대」, 『2021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선도국 시대와 신질서의 미래』(2021.12.02.), 대통령직속 국정과제협의회·경제인문사회연구원 주최, 한국행정연구원 주관, 91쪽.

4) 김종철, 「대전환시대, 권력개혁과 공정한 사회의 미래」, 『2021 대한민국 국가비전

있다. 교수들이 ‘도둑 잡을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되었다’며 2021년 한국 사회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묘서동처(猫鼠同處)⁵⁾를 꼽은 것도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의 경고음일 것이다.

국어국문학이 이러한 난제들과 무관할 수 없다면, 아예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소통을 통한 상생의 방법과 국어국문학의 역할을 모색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매우 의미 있는 논의의 자리라고 생각한다.

2. 학문학과 학제간 연구

세종대왕은 즉위 이듬해에 유명무실하던 집현전을 대폭 확대·개편하였다. 세종 때 집현전 학사들은 경학뿐 아니라 천문학, 역사학, 농학, 약학, 법학, 언어학과 기술과학 등 당시의 학문 전반을 감당하여 『고려사』, 『농사직설』, 『오례의』, 『팔도지리지』, 『삼강행실』, 『치평요람』, 『동국정운』, 『의방유취』 등 다양한 서적을 펴냈다. 물론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도 여기에서 나왔다. 세종대왕을 중심으로 한 학사들 간의 긴밀한 소통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학문학’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학문이라는 것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학이 자리를 잡는다면,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사들의 긴밀한 소통을 독려하는 듯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이 갖가지 악기를 동원하여 영화 주제곡 연주를 하는 영상을

회의: 선도국시대와 신질서의 미래』(2021.12.02.), 62쪽.

5) 「교수신문」(2021년 12월 12일자).

흥미롭게 본 적이 있다. 악기는 제각각 자신의 소리를 내지만,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화음을 이룬다. 세계의 다양한 학문이 각자의 방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있다. 학문학이 지휘자 구실을 할 수 있다면, 모든 학문이 인류 보편의 가치 추구의 화음을 내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국어국문학이 고유의 소리를 내는 동시에 학문학 착근에도 기여한다면 인접 학문과 더 많은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대학에서 학제간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분명해졌다. 인류의 생존과 생활에 기여하는 완성도 높은 학문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분야마다 가로놓인 담장을 허물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무한한 경우의 수를 담고 있는 문학과 언어를 다루는 국어국문학자들이 선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새로운 집현의 시대’를 한번 열어보는 것도 도전할 만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훈민정음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게 고안된 문자체계’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더욱이 k-방역이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의 음악·음식 등의 문화까지 덩달아 상승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 전통 한지의 진가도 세계에 차츰 알려지고 있는 모양이다. 그동안 세계 박물관의 미술품이나 문화재 복원의 재료로 일본의 화지가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지만, 루브르박물관에서 우리 한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복원 재료로 채택했다는 낭보가 들린다.

최근의 흐름이 국어국문학자들에게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어와 한국문학이 한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

이다. 방법론 모색에 적극 나선다면 여러 분야와 어떤 식으로든 협력의 길이 열리리라 믿는다.

3. 국어국문학과 새로운 학문 생태계

2021년 8월 기준으로 4년제 일반대학은 197개교이다. 여기에 전문대와 사이버대 및 대학원대학 등을 더하면 대학은 약 400개교로 집계된다. 이들 대학에서 ‘국어국문학’ 간판이 점차 사라져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구체적 실상이 궁금하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⁶⁾센터의 통계자료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간단한 비교를 해보았다. ‘학과·학부·전공’ 등 모집단위에 차이가 있지만, ‘국어국문학’을 내세운 곳이 2008년 97개교에서 2020년 78개교로 줄어들었다. 한때 유행했던 ‘문예창작’도 2008년 24개교였던 것이 2020년에는 6개교로 줄었다. ‘한국어문학’과 ‘한국어학’을 표방한 곳이 20개교 남짓 있긴 하다. 분명한 것은 한국문학과 한국어를 연구해 온 국어국문학자의 입지가 예전같지 않다는 점이다. 국어국문학이 스스로 존재 이유를 입증하고 설자리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국문학통사』의 저자 조동일 교수께서는 한국문학을 동아시아문학 나아가 세계문학과 비교하며, 한국문학이 세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데 대한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세계문학사 서술을 한 단계 진전시킨 공적이 있다는 러시아 고르키세계문학연구소(Gorky Institute of World Literature) 발간의 『세계문학사』에도 “한국문학에 관한 서술은

6) kess.kedi.re.kr

특히 미비하고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⁷⁾ 앞으로 국어국문학자들이 해야 할 일을 일깨우는 화두처럼 느껴지는 대목이다.

대학에서 국어국문학의 입지는 좁아들고 있지만, 할 일은 여전히 태산이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작품을 세계에 널리 전하는 것도 국어국문학자들이 힘을 쏟아야 할 일이겠지만, 국내에서 정리·탐구해야 할 자료들도 만만치 않다. 탈초와 번역을 기다리는 한문 고문서도 계속 나오고 있다. 모두 한국문학의 소중한 자원이다. 여기에서 인류가 공유할 만한 보편의 가치와 원리를 찾아내는 것 또한 국어국문학자들의 몫이다.

대학에서 국어국문학의 설 자리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강의를 접할 수 있는 지금의 추세로 보아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유튜브 혹은 메타버스 등이 해법의 단서를 줄 수 있다고 본다. 유튜브로 외국 학자가 탑재한 박지원의 『열하일기』 강의를 수강하거나 메타버스로 일컬어지는 사이버 공간에서 박경리의 『토지』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대학 밖에서 학문의 상당 부분이 이뤄지는, 완전히 새로운 학문 지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국가가 어떤 청사진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도 큰 변수가 되겠다. 유럽 최대 규모의 기초과학 연구기관으로 꼽히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INSERM)은 약 32,000명의 연구원 및 스태프를 두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정부 출연으로 움직이는 이 연구기관은 연구실적, 인용횟수, 국제협력 등에서 지속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뿌리는 만큼 거두는 것이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시비 등으로 이어지는 동북아의 갈등이 모두 인문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인문학 연구자들

7) 조동일, 『창조하는 학문의 길』, 지식산업사, 88-89쪽.

이 활발하게 연구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홍익인간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인문정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면, 난민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의 올바른 해법 모색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미래와 국어국문학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는 지구로부터 61억km 떨어진 우주에서 지구를 촬영했다. 과학기술이 이룬 위대한 업적의 하나일 것이다. 보이저 계획의 화상 팀을 맡아 이 촬영을 주도했던 칼 세이건(Carl Sagan)은 자신의 저서 『창백한 푸른 점(Pale Blue Dot)』에서, “우리의 거만함, 스스로의 중요성에 대한 과신, 우리가 우주에서 어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망상은 이 얇은 빛 나는 점의 모습에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우리 행성은 우주의 어둠에 크게 둘러싸인 외로운 티끌 하나에 불과하다.”⁸⁾고 했다. 인간들이 놀라운 첨단기술로 ‘인간 존재의 가벼움’을 역설(力說)하는 역설(逆說)을 여기에서 본다.

일찍이 소동파는 <적벽부>에서 자신을 창해(滄海)의 일속(一粟)이라 노래했다. 우주 탐사선에 장착된 카메라와는 다른 렌즈로 인간 존재의 미약함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더 오래전, 장자는 구만리 장천을 유영하는 대붕(大鵬)을 이야기했다. 칼 세이건이 『장자』 ‘소요유(逍遙遊)’를 접했다면, 지구 위에서 꼬물대며 사는 인간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우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 넓힐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동

8) 칼 세이건 저, 현경준 옮김, 『창백한 푸른 점』, 사이언스북스, 2010(1판 8쇄), 27쪽.

(東)과 서(西), 고(古)와 금(今)을 막론하고 다른 분야와의 활발한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 소통이 활성화되면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통찰력의 깊이도 한층 더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인류세라 지칭되는 지질시대에 접어든 지구촌은 지금 기후나 환경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한편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로 신음하고 있다. 여태껏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고 여겼던 소위 선진국들의 무기력한 대응은 그 자체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관의 필요성을 입증했다. 모든 학문이 서로간의 벽을 허물고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국어국문학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미래의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준비된 답’은 없다. 답을 만들어가야 한다. 역사학이나 철학은 물론 천문학이나 생물학 등등의 타 학문에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야 한다. 그래서 국어국문학이 학문학과 학제간 연구 활성화에 적극 나설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의 여건이 척박한 만큼 유튜브나 메타버스 등을 이용한 새로운 학문 생태계 조성에도 뛰어들어야 한다. 국가에다 인문학도들의 바람직한 연구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이런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통의 통로가 트이고 상생의 방법론이 다듬어지리라 생각한다. 국어국문학이 앞장서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학문이 조화롭게 협업하는 ‘새로운 집현의 시대’를 열 수 있기를 바란다.